

## 중앙아시아·아프리카·환태평양 경제권 등 대외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 본격 착수, 국익·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 판단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 추진
- 중앙아시아·아프리카와의 전략적 경제협력 및 해외수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27일(목)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방안」,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최계획 및 예상성과」, 「해외수주 실적 및 향후 지원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하였다.

\* 참석 : 경제부총리(주재),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구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미국·중동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혀 왔으며, 앞으로는 이를 지역·다자 차원의 통상·경제협력으로 확장하여 우리 경제의 대외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②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③이러한 협력이 기업의 수출·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먼저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CPTP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성장 파트너와의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9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풍부한 자원과 유라시아 중심의 지리적 이점을 보유한 중양아시아와 상호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①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②AI·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협력, ③교통·물류 및 인재양성을 포함한 호혜적 협력기반 강화 등 양측의 협력수요가 일치하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중양아시아의 자원과 잠재력을 우리의 기술·금융·정책경험과 결합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도 한 단계 도약시킨다. 재정경제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오는 9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나흘간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개최한다.

\*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64년 설립된 국제기구(본부 코트디부아르, 한국은 '82년 가입)

올해는 KOAFEC 출범 20주년을 맞는 해로,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향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과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개발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분야가 토목·건설 중심의 전통적인 인프라 시장에서 친환경·스마트 인프라·원전 등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외교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중동 지역 발주 지연 등으로 금년 해외수주 여건은 작년 대비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금년중 계약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 발굴부터 금융지원, 수주 이후까지 해외수주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국민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 총괄 ]

|       |         |     |     |                        |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 책임자 | 과 장 | 최지영 (044-215-7610)     |
| <대경장> | 대외경제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우지완 (woojw94@korea.kr) |

## [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

|       |           |     |     |                         |
|-------|-----------|-----|-----|-------------------------|
| 담당 부서 | 산업통상부     | 책임자 | 과 장 | 윤선영 (044-203-5740)      |
| <총괄>  | 통상협정정책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신서현 (sseohyun@korea.kr) |

## [ 한-중양자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방안]

|       |       |     |     |                         |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 책임자 | 과 장 | 구교은 (044-215-7740)      |
| <총괄>  | 경제협력과 | 담당자 | 사무관 | 황인환 (inhwan89@korea.kr) |

## [ 해외수주 실적 및 향후 지원방안]

|       |       |     |     |                            |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 책임자 | 과 장 | 문기영 (044-215-7630)         |
| <총괄>  | 국제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소영 (syjeong0214@korea.kr) |

## [ 제8차 KOAFEC 장관회의 개최 계획 및 예상 성과 ]

|       |       |     |     |                        |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 책임자 | 과 장 | 곽소희 (044-215-8720)     |
| <총괄>  | 국제기구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기환 (kkhpark@korea.kr) |